



## 트로이 목마 속 병사들은 설사 멈추려고 이것을 먹었다는데

‘당근,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리베카 립 지음

음식의 역사를 다룬 미시사(史)는 온라인·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 독자층이 즐겨 찾는 분야다. 최근 출간된 ‘당근,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도 언뜻 보면 어느 평범한 미시사학적 문화서와 비슷하다.

오리더 매일 식탁에 오르는, 너무나도 흔한 채소 20가지를 소재로 역사 속 뒷이야기들을 풀어내서인지 훨씬 가볍게 느껴지기도 한다. 역사서라기 보다는, 교양상식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그렇다고 인체 부위에 따라 음식 색깔을 맞춰 먹는 게 몸에 좋다는 건강 상식을 전달하는 수준이라고 넘겨짚어서도 안된다. 세계사를 두루 훑으며 채소 20종에 얽힌 다양한 사건들을 풀어내는 글 솜씨가 넘쳐나는 게 미시사에도 불구하고,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책장도 확실히 넘어간다.

미국의 과학 저술가 리베카 립이 쓴 ‘당근,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우리와 친숙한 20가지 채소에 얽힌 세계사를 빠짐없이 소개한다. 오이·셀러리·고추·양파·아스파라거스·빈·비트·양배추·감·옥수수·가지·상추·벨론·완

두콩·감자·호박·래디시·시금치·토마토·순무 등 미처 몰랐던 채소와 관련된 역사 속 뒷이야기들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셀러리, 카사노바의 유혹에 기여하다’, ‘고추, 노벨상을 받다’, ‘가지, 성직자를 기절시키다’, ‘상추, 불면증 환자를 잠재우다’ 등 각각 채소에 얽힌 주제와 어울리는 재미있는 제목도 눈에 속속 들어온다.

아가뱀은 병사들이 트로이 목마 안에서 설사를 멈추게 하려고 당근을 먹었다거나, 교활한 로마 병사들이 당근을 죽에 넣고 살아 여자 포로들의 억압된 성욕을 표출시키려 했다는 등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처 몰랐던 내용이 펼쳐진다.

채소가 감장제와 정력제로서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역사적으로 아스파라거스는 순전히 성적인 음식’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눈이 번쩍 뜨일만하다. 외설스러운 줄기들이 감수성 예민한

심대의 상상력을 자극할까봐 여학교에서 배식이 금지됐거나 ‘진실적 성에 교본 ‘카마수트라’에서 시들어진 연인들의 원기를 북돋는 요리법을 소개하면서 언급된 아스파라거스를 넣고 끓인 페이스트 레시프 등 솔깃할만한 내용이 적잖다.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는 가지가 유럽에서 ‘발광 사과’, ‘미친 사과’라는 역울한 누명을 쓴 일화나, 셀러리가 ‘비아그라 채소’로 불리고 데이트 전 셀러리 몇 줄기가 미온적 태도와 뜨거운 밤의 차이하는 내용을 찾아 언급하는 점도 재미있다.

저자는 이처럼 채소의 발견과 전파 과정,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문화사적 맥락에서 탐구하고 있다.

아울러 채소가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발견됐고 어떤 경로로 세계에 고루 퍼질 수 있었는지를 추적하며 생물학적·계통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시그니처·1만5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일상사부터 권력까지 조선의 왕비를 만나다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심재우 외 지음



조선의 국모(國母)이자 궁궐의 안주인인 왕비의 궁궐 속 삶은 어땠을까.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펴낸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는 조선시대 왕비의 삶과 역사적 자취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왕실문화총서’ 시리즈 중 ‘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에 이어 출간된 책으로, 심재우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교수 등 7명이 함께 엮었다.

왕비의 위상과 역할, 왕비의 궁중생활, 역사에 기록된 왕비와 후궁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왕비의 간택과 책봉’, ‘아이를 낳고 기르다’, ‘왕실 여인의 권력 참여, 수렴청정’, ‘왕실 여성의 독서와 글쓰기’, ‘왕비와

왕실의 외척’, ‘왕비와 궁중여성들’ 등으로 나눠 조선 왕조 권력의 중심인 왕비에 초점을 맞춰 들여다보고 있다. 조선 당대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로 왕비를 선택한 데 주목할만하다.

특히 왕실 관련 자료를 총동원해 왕과 왕비의 첫날 밤, 왕실 여성들의 여가생활, 후궁과 궁녀 등 궁중 여성들과 왕비의 관계, 후궁의 삶 등 왕실과 궁궐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보여준다. 이외 최초의 수렴청정을 한 세조의 비 정희왕후, 수렴청정이 끝난 뒤에도 정사에 계속 관여했던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 등의 얘기도 흥미롭다.

〈들배개·2만5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그림속 인물·배경·소품들, 색다른 명화 감상

‘살림하는 여자들의 그림책’ 베아트리스 폰타넬 지음



평소 미술전시장을 찾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술작품을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해진다.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게 있는가 하면 작품에 얽힌 정보를 알고 봐야 가슴에 와닿는 작품도 적지 않다.

미술작품 보는 눈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미술 교육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살림하는 여자들의 그림책’은 조금 색다른 명화 감상법을 제시한다. 시인, 도상학자이자 주부이기도 한 저자 베아트리스 폰타넬은 중세부터 20세기까지 명화를 통해 드러나는 당대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미학적 가치보다 그림 속 인물과 배경, 소품

을 통해 역사적 상황을 읽어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작품에 대한 감상 팁, 화가의 개인적인 배경도 함께 풀어놓는다. 미술작품을 좀 더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법을 제안하는 셈이다.

특히 명화를 통해 살림하는 여성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시선을 따라 가다보면 그림 속 살림살이와 인물의 몸짓에 눈길이 고정된다. 예를 들면 유럽 궁중 목욕실에서 보석을 걸친 채 체리를 깨물어 먹고 있는 우윳빛 피부의 귀부인들의 모습을 담은 채색 삽화를 보여주면서 중세 유럽 궁중 목욕탕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명화 속 등장하는 고풍적 비데와 인테리어의 쓰임새를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봄·2만75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죽음의 끝자락 상연소리꾼 오충웅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김준수 지음



‘어느 날 어느 날이 넘자 어느 날/어젯 밤은 내 집인데 오늘 밤은 어디엔가 /.../어느 날 어느 날이 넘자/밀고 당기고 올라가네 북방산천으로 올라가네 /.../’

상연소리는 죽음의 끝자락을 그리면서 다음 세상을 보살펴주는 노래다. 한 맺힌 삶을 살았다면 조금이라도 그 한을 풀어주고, 못 다한 말이 있다면 절절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의미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는 강진의 상

연소리꾼 오충웅 씨의 삶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는 책으로, 한반도 민초들의 삶을 밀착 인터뷰 방식으로 담아낸 ‘민중자서전’ 시리즈의 첫번째다.

사진작가인 저자 김준수씨는 강진에서 만난 오씨를 통해 사라지는 직업의 하나인 상연소리꾼의 삶을 인터뷰 방식으로 기록해 나간다.

흑백 사진이 곁들여진 화보 에세이 형식으로 오씨의 굴곡진 삶을 생생하게 담았다. 〈알파·1만5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다르지만 같은 고단한 우리들

‘당분간 인간’ 서유미 지음



지난 2007년 문학수첩 작가상과 창비장편소설상을 받은 서유미씨의 첫 소설집이다. 지난 2009년 ‘창작과 비평’에 실린 ‘저건 사람도 아니다’를 비롯, ‘스노우맨’, ‘그곳의 단점’, ‘삼의 이력’, ‘당분간 인간’, ‘타인의 삶’, ‘세 개의 시선’, ‘검은 문’ 등 문학지에 발표된 단편 8작품을 함께 엮었다.

관계와 구조에 끼어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무른 인간들이 무너져내리는 과정을 기발하고 재치있는 상상력으로 그려냈다. 고단한 우리네 현실과 절도

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오로지 ‘잘리지’ 않기 위해 폭설 속에서 눈더미를 한 삼삼 때내며 출근을 감행하는 회사원의 이야기를 다룬 ‘스노우맨’,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데 지쳐버린 한 여성이 로봇도우미를 빌렸다가 로봇에게 밀려 버리는 상황을 그려낸 ‘저건 사람도 아니다’ 등 신선한 소재라는 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다.

〈창비·1만2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 시대 문화변동... 미디어에서 세상을 읽다

‘두꺼운 언어와 얇은 언어’ 박명진 외 지음



‘두꺼운 언어와 얇은 언어’는 현재 한국 사회를 설명해줄 아홉 장면을 꼽아 담론적 변화 양상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추적하고 있다. 박명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비롯, 10명의 미디어 담론 전문가가 그들이 고안해낸 ‘두꺼운 언어’와 ‘얇은 언어’라는 프레임으로 이 시대 문화 변동의 경향을 바라보고 있다.

각 저자들은 TV, 인터넷, 신문기자, 인터넷 웹사이트 등 다양한 미디어를 대상으로 걸맞은 연구 방법론을 선택, 적용해 분석하고 있다. 송병우씨는 TV 사극 ‘선덕여왕’ 등을 통해 역사 드라마의 내용이 지닌 논리와 그것이 의미를 구축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김수아씨는 아이들에 대한 삼촌팬과 누나팬의 온라인

팬덤을 비교 분석한다.

낮 동안엔 후원자 누나였다가 한밤과 새벽녘 인터넷 공간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펼쳐내는 성인 여성 팬들의 변신과 욕망을 가족애로 순화해 표현하는 삼촌팬에 대한 분석이 흥미롭게 읽힌다. 적나라하게 성적 발언을 하는 누나팬과 성적 표현을 삼킨 체 제 위치를 지키는 삼촌팬을 대비시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분석이 눈길을 끈다.

또 최선정씨의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분석과 홍석경씨가 유럽 사회의 지배적 성 규범 맥락 속에서 한류 현상을 분석해 나가는 과정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문화과 지식사·2만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신간

▲미래의 물리학=2100년대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빛의 속도로 과학이 발전하는 요즘 미래 과학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평행우주론 창시자이자 이론물리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미치오 가쿠 뉴욕시립대 석좌교수가 300여명의 과학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기초로 해 미래를 바꿔놓을 첨단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줄기세포로 오래된 장기를 대체하고 탄소나노튜브를 통해 우주까지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미래 현실이 손에 잡힐 듯 그려진다. 〈김영사·2만5000원〉

▲궁궐, 조선을 말하다=조재모 경북대 건축학부 교수가 ‘어떻게 사용하려고 만들었는가’와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궁궐에서 조선의 제도와 이념이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살펴본다. ‘궁궐, 그 복잡한 일개’, ‘규범과 관습의 타협, 궁궐 건축’, ‘궁궐을 뒤튼 욕망’ 등 3부로 나눠 궁궐의 속살을 들여다본다. 〈아트북스·1만7000원〉

▲템플 그랜든=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가족의 인도적 대우를 옹호하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로 추켜세우며 “2010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에 올랐던 세계적 동물학자인 템플 그랜든의 이야기를 다룬 책. 논리적 전문작가 사이 몽고메리는 세 살에 자폐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동물학자, 인도적 측사 시설을 설계하는 공학자, 자폐아 통역자로 성공한 이야기를 잔잔하게 전한다. 〈작은길·1만1000원〉



▲현대미술에 관한 101가지 질문=나혜현 현대미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할까. 저자 독일 미술사학인 주자나 파르치 박사는 ‘추상화는 위아래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어떻게 하면 현대미술을 제대로 관람할 수 있을까요’ 등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질문 101가지를 추려내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해 이해를 돕고 있다. 〈경당·1만4000원〉

▲속지않는 국민이 거짓없는 대통령을 만든다=‘대선토론으로 좋은 대통령을 고르는 30가지 방법’이라는 부제에 어울리게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판단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 학생, 연구자, 졸업생 5명이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매주 6시간 이상 연구·토론·논쟁을 거쳐 만들었다. 118개 국내외 대선 토론 발언 사례를 제시하면서 후보들의 정책 공약, 주장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점수 매길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위즈덤하우스·1만5000원〉

▲가수를 말하다=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가 20여년간 축적한 인터뷰, 취재자료, 평론을 토대로 엮어 낸 가수와 가요 이야기. 엘레지 여왕 이미자부터 신중현, 조용필, 문화 대통령 서태지, 콘서트 왕자 이승환, 이선희, 이승철 등 국내 대표적 가수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국내 가요 역사를 정리해가면서 가수들의 인생·음악 철학도 엿볼 수 있다. 〈박히우스·1만5000원〉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싶은 소망 때문일까, 아이들의 꿈을 몰으면 빠지지 않았던 꿈이 ‘대통령’이다. 미래의 대통령을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으로, 아이 눈높이에 맞는 상상력을 동원,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유쾌하게 풀어낸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책고원나무·1만2000원〉

▲폭력은 나빠!=새로 전학원 덩치 큰 다니는 친구들이 가지고 놀던 게임기를 부숴 버리는 등 친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친구에게 쉽게 주먹을 휘두르는 아이들에게 폭력은 잘못된 표현 방식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올바른 소통 방법을 제안한다. 〈국민서관·8000원〉

▲그 고래, 번개=제 1회 정채봉 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저자인 류은씨의 창작 동화 ‘베트남+한국’, ‘마귀할멈 이야기’, ‘꼬마 산신령, 호랑이 눈썹, 달뿔’ 등을 함께 엮었다. 남해

에 사는 고래 ‘번개’와 열 세살짜리 외로운 섬 소년 상택이의 이야기를 통해 순수한 동심을 일깨운다. 〈샘터·1만1000원〉

▲동남구 엄마=윤문사 은행나무 설화를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낸 창작 동화. 윤문사 은행나무 밑에 버려졌던 아이 ‘단유’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상실감을 극복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중함과 일상의 행복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 담은 성장 동화다. 저자 이기인씨가 책 현사에 쓴 “엄마 법세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에게 바칩니다”에서 소외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위로가 담겨 있다. 〈동쪽나라·1만2000원〉

▲도서관의 역사=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역사를 시대별, 지역별로 한 눈에 담아 설명하고 있다. 문자의 발명, 종이의 발명과 전파, 인쇄술 발명과 발전 등 인류 문명의 역사에 도서관이 미친 영향 등을 쉽게 풀어냈다. 〈이키넷주니어·1만3000원〉

## 어린이 책꽂이